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4월 7일 목요일 (음 3월 1일)

제153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정동영·장세환·김광수 후보, "문화와 생명의 도시 '전주'에서 살고파"... '연어 프로젝트' 제시

## 국민의당, 전주지역 모두 '승기 잡기'

"전북의 가난은 타 지역에 대규모 투자로 이뤄진 것"

도농복합형 실버타운 조성 소형 마을회관 설치 등 약속

"문화와 생명의 도시 '전주'에서 살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출마한 국민의당 전주시 선거구 후보들이 7일 전북 연어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 장세환(전주을), 정동영(전주병) 후보는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시절 서울과 수도권 영남과 충청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분들을 전북으로 전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북 인구는 1980년 240만명으로 전국의 9.6%였는데, 1990년에는 207만명으로 전국의 4.8%였다"면서 "이는 가난 때문, 호남 차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북 가난은 부지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게을러서가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영남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호남을 굶주리게 한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헌의회에서 전북국회의원이 22명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10명으로 줄었다. 경제가 쪼그라드니 정치도 쪼그라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력을 갖춘 액티브 시니어세대가 농어촌으로 귀촌할 경우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액티브 시니어세대는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60대 세대를 말한다.

실제로 시니어세대가 차지하는 구매력은 큰



6일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비례대표 3번)·장세환(전주을)·정동영(전주병)·김광수(전주갑) 후보(왼쪽부터) 등은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U-턴 전북, 연어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관광공사조사에 따르면 전체 해외여행 수요 중 50대 이상 시니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7.9%에서 2015년 45.5%로 성장했다.

또한 국내 주요 대형마트 A사의 60대 이상 고객 매출비중 역시 2013년 7.8%에서 2015년 9.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들은 "경제가 살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경제가 돌아간다"면서 "사람이 사는 전북, 경제가 돌아가는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연어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한 세부계획도 발표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도농복합형 실버타운 조성 △미당이 있는 공정주택 공급 △실버케어 양성 △생활관리 소형 마을회관 설치 △말벗 프로그램 신설 등을 약속했다.

정동영 후보는 "순창에서 연어 프로젝트로 1년 살아봤는데, 생활비가 거의 안 들었다. 밤에는 별을 보는 등 삶 속으로 자연이 들어왔다"면서 "연어 프로젝트는 전북 인구를 늘리는 프로젝트이면서 불행한 삶을 치유하는 프로젝트"라고 했다.

한편 정가 관측자들은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민의당 후보들이 승기를 잡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 "대선주자 1위 호남에 안보내는건 해당행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6일 "대선주자 부동의 1위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호남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더민주 낙선 후 '더캐슈세단'을 이끌며 전국 유세를 하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문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김종인 대표 등 당내 일각에서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더민주 정청래 의원  
김종인 부정적 시각 관련

정 의원은 "당 지도부와 바깥 민심 지지자들이 많이 동떨어져서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며 "호남 같은 경우는 야권 지지성향이 강하지 않느냐.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느끼는 민심은 대선후보 1위를 하고 있는 후보를 호남에 못 가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겁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총선 때 호남을 가지 못하면 대선 때는 어떻게 호남에 가겠느냐"고 되물었다.

정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도 자제해야 한다"며 "농번기에는 부지깽이 하나라도 더 보태야 하는데..."라며 "당 지도부가 방향전환을 해서, 어느 누구라도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먼저 호남에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 4.13 총선 D-6 당신의 한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 거래소 개편·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금융위, 자본시장 활성화 재추진 역할

금융당국이 거래소 지주사 전환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재추진하는 데 올해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금융권 임직원에게는 성과주의 도입을 독려하고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

는 특별빈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다시 추진하고,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금융지주 중심의 종합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상반기까지 전면 개편하겠다고 6일 밝혔다.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특화 증권사 4~5곳의 선정 결과는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상반기 중으로 회사채 시장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담보부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과 같은 기존 회사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해 시장의 심리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BBB에서 A등급 회사채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중위험 채권 수요 기반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4월 중 공모펀드와 관련 운용사 성과 보수를 늘려 펀드 수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비교 공시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분기에는 공모가 산정과 배정을 인수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논란이 있는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에 관해서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훈련과 영업방식 개선 방안 등을 4월 안으로 확정해 조기 도입토록 하고, 21일에는 금융공공기관장을 불러 모아 3차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인진수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주간 운영

교육부는 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2주기 추모주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각 시·도교육청에 도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세월호 참사 추모주간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 별도의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학교 단위로 추모식을 하거나 추모 리본, 현수막 등을 부착하게 되며, 시교육청과 각급학교는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해 추모 댓글 달기 행사도 전개한다. /최용주 기자

"7월 신문의 날" 관계로 8월·9월·10일자 신문 쉽다.

고은 이동원(鼓隱 李東元)선생 추모

# 제4회 전국 농악경연대회

※주최,주관:부안농악보존회,전주매일신문 ※후원:농림축산식품부,전라북도,부안군,부안군의회

※일시:2016.5.8.(일) 09:00~15:00 ※장소:부안군청 광장  
문의: 063)584-4182 / Fax 063)584-3250 / 010-2425-4182

5월 6일(금) ~ 5월 8일(일)